

부채상환 vs 마이너스통장... 소득 따라 금리 활용법 천지차

금리인상 세대별 후폭풍

〈중〉 4050 세대

전 연령 중 월평균 소득 가장 많아
지출 규모도 커지며 상하위 격차 ↑
“교육비 등 부담완화 방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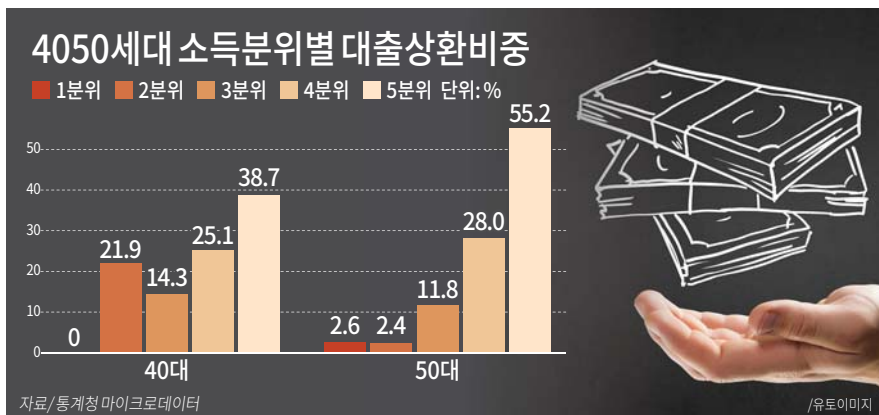
#. 외벌이 직장인 김모씨는 3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쓰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 지출은 늘어나고, 두자녀의 교육비 등이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안됐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대출금리를 볼때마다 마이너스통장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실적으로 생활비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며 “나라에선 청년과 노인이 힘들다고 지원 대책을 내놓지만, 중년들도 살기가 정말 팍팍한 상황”이라고 했다.

399만7500원. 4050세대의 월평균 소득이다. 전 연령 중 가장 소득이 많지만 그 만큼 나갈 곳도 많다. 일반적으로 4050세대는 생활비 외에도 자녀교육비와 주택구입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나아가 노후준비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팬데믹 이후 4050세대의 빈부격차는 소득이 유지여부와 부채상환, 소득에 더해 자산을 얼마나 증식시켰는지에 따라 갈렸다.

◆ 4050세대 비자발적 퇴직자수 ↑

지난해 40대 비자발적 퇴직자수는 17만7000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45.6%에 달했다. 비자발적 퇴직이란 직장의 휴·폐업,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실직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50대가



지 합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원치 않게 퇴직한 사람이 절반이상 된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4050세대는 소득은 많았지만, 소득의 분포는 극명하게 갈렸다. 메트로신문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로 연령별 소득분위를 분석한 결과 50대의 경우 소득 하위 20% (1000만~3000만원 미만)의 비중은 11.34%, 소득 상위 20% (7000만~1억원 이상)의 비중은 30.73%였다. 20대와 60대의 경우 소득 하위에 대부분 몰려 있어 소득 상위 20%의 비중이 적었다면, 4050세대의 경우 소득 상·하위 20%에 몰려 있다는 설명이다.

◆ 상위 20% 대출상환하고, 하위 20% 마통 사용

문제는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 하위 층을 중심으로 마이너스대출 등이 증가하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한 번에 목돈을 받는 다른 신용대출과 달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생활비나 긴급 자금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4050세대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해 8월기준 28조6720억원으

로, 전체 사용금액의 64%를 차지했다. 2030세대가 13조997억원을 사용해 전년 말 대비 3%감소한 것과 달리 3% 증가했다. 금리인상 상황에 맞춰 마이너스통장을 줄이고 있지만, 소득보다 지출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마이너스통장 사용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는 금리인상시기 부채를 상환해 나갔다. 40대 소득 상위 20%는 전체 부채 가운데 38.71%를 상

환한 반면 소득 하위 20%는 한 톨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소득 상위 20%는 전체부채 중 55.18%를 상환했지만, 소득 하위 20%는 2.64%에 그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득 상위 20%의 경우 부동산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대출을 활용하지만 금리가 인상되고부터는 대출을 먼저 해소하려는 경향이 컸다”며 “불필요한 지출(이자상환)을 줄이고, 현금비율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 하위 20% 노후준비 “전혀 되어있지 않아”

이 밖에도 4050세대는 노후준비에서도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가 극명하게 갈렸다. 2030세대들의 대부분이 노후준비상황과 관련해 ‘잘되어 있지 않다’ 이하에 몰려 있는 것과 달리, 4050대는 자산상위 20%는 ‘보통이다’에, 자산하위 20%는 ‘전혀 되어 있지

다’에 분포했다. 자산상위 20%도 ‘잘되어 있다’는 비중이 15%내외로 낮았지만, 하위 20%에 비해선 은퇴이후의 생활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후준비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은 부채상환 부담과 자녀교육비 등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후준비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은 부채상환 부담과 자녀교육비 등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일정 연령층이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사적연금 가입시 소득공제를 확대하거나, 퇴직연금과 관련해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해 기업의 기여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1년새 서울소비경기지수 6.7% ↑

서울研 3월 서울소비경기지수 122.4
전 권역 상승... 서북권 으뜸폭 가장 높아

올해 3월 서울소비경기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소비경기지수는 122.4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6.7% 올랐다.

올 3월 서울소비경기지수 상승은 숙박·음식점업(22.7%)의 소비 증가에 따른 것이다. 숙박·음식점업의 하위업종 중 주점·커피전문점(37%)과 음식점(26.2%)의 소비 호조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와 반대로 소매업(-0.9%)은 약세였다. 구체적으로 기타가정용품(-15.7%), 가전제품·정보통신(-12.4%), 음식료품·담배(-4.2%), 종합소매(-3.8%), 기타상품(-2.8%), 문화·오락·여가(-2.5%) 순으로 소비가 줄었다.

권역별 소비경기지수는 서울 전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서북권(11.9%)의 소비경기지수 으뜸폭이 가장 컸고, 도심권(7.7%), 동남권(7.2%), 서남권(6.7%), 동북권(5.8%)이 뒤를 이었다.

서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9% 상승해 가장 큰 으뜸폭을 기록

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30.5%)의 소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주점·커피전문점(48.5%), 음식점(27%), 숙박(0.6%) 등 모든 하위업종의 소비가 늘었다.

서북권의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 쪼금 올랐다. 의복·섬유·신발(21.3%), 연료(8.2%), 무점포소매(4.6%), 가전제품·정보통신(1.4%)을 제외한 5개 하위업종의 소비가 쪼그라들었다. 특히 문화·오락·여가가 10.4% 감소하며 상승 폭을 확 꺾었다.

동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8% 상승하는 데 그쳐 5개 권역 가운데 증가세가 가장 부진했다. 숙박·음식점업은 25.4% 증가한 반면, 소매업은 3.6% 감소했다.

동북권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47.3%), 음식점(22.7%)이 선전했으나, 숙박이 10.1% 줄면서 증가 폭을 둔화시켰다.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25.3%), 문화·오락·여가(5.1%), 무점포소매(0.7%)를 제외한 모든 하위업종의 소비가 축소됐다. 세부적으로 가전제품·정보통신(-12.0%), 기타가정용품(-9.3%), 종합소매(-7.9%), 음식료품·담배와 연료(-6.9%), 기타상품(-5.3%) 순으로 소비가 감소했다. /김현정 기자 hjk10@

서울특별시교육청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꿈

안아주기 · 이해받기 · 바람 묻기 · 바람 말하기

“친구 마음 알아주고, 내 바람 전해요.”

안아주기: 먼저, 친구 마음 알아주기
이해받기: 내 마음 말하기
바람 묻기: 친구 바람 묻고 답하기
바람 말하기: 내 바람 말하고 묻기